정부조직 개편과 화학부서 통합

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정부조직이 또다시 대폭 개편될 모양이다. 정부조직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대폭 개편됐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1998년2월에 이어 1999년5월에도 일부 개편됐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러차례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으나, 단 한번도 국민의 의사나 개혁정책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4월총선 이후 개편에서도 얼마만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및 여성부 신설에 따른 정부기구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공청회 및 세미나를 열어 민의를 수렴한 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개편의지가 어느정도 반영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1998년 및 1999년 개편에서도 개편취지는 좋았으나 관료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100% 실현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1 999년 5월 17일에도 중앙 45개 행정기관의 1603개 실·국·과 중 120개와 4급이상 자리 241개를 없애고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한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직제개편도 그렇고, 인원감축은 더욱더 그러하다.
1998년 1차 조직개편 및 1999년 2차 조직개편으로 2001년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의 10.5%인 1만4861명이 줄어들게 된다. 감축인원은 1999년 5-12월 5963명, 2000년 4801명, 2001년 4097명이다. 그러나 2001년까지 1만4800여명이 감축될 것으로 믿는 관료나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료들이 고위직이나 중하위직을 불문하고 갖가지 이유로 조직 축소 및 인원감축에 반발해온 것이 사실이고,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구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개혁의지가 그만큼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학산업과 관련된 정부조직도 마찬가지이다. 1980년대 및 1990년대 초 상공부 기초산업국 및 생활산업국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과, 생활소재과 등으로 나누어진 후 통상산업부 섬유화학국으로 통폐합되는가 했더니 어느새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및 생활산업국에 기초소재과 및 생활화학생물과로 이원화됐고, 현재까지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석유화학을 담당하는 기초소재과는 석유화학과 철강이 합쳐진 조직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2과가 소재라는 명분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생활화학생물과는 생활소재를 비롯해 플래스틱, 정밀화학, 생물화학 등이 혼재하는 짬뽕탕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정책 수립 및 집행은 물론이려니와 화학산업 비전 설정이나 현실인식에 있어 일관성이 전혀 없고,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책공조를 통해 산업발전을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의 이기주의적 욕심에 사로잡혀 대립과 대결로 날을 새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이다. 그래서 화학산업계 일부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화학관련과를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냐고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 Responsible Care 협의회」 창립시의 혼선이다. 처음에는 「한국RC협회」를 창립한 뒤 「한국화학산업협회」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아래 창립을 진행했으나, 생활화학생물과 및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 절대반대를 고수해 「협회」가 아닌 「협의회」로 낙착됐다는 후문이다.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 산업자원부의 지원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CFC기금 운영상 나눠먹기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은 화학산업계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뒷돈 챙기는 미련 때문에 통합에 반대했다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인 일본도 통산성 화학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책운영에 있어 선·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국가발전은 염두에도 없다는 결론인 것이다. 화학협회가 설립되지 못해 ICCA(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에 가입하지 못하고 미국·유럽·일본이 주축이 된 ICCA의 결정사항을 추인하고 시행하는데 급급한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인 것이다. 「철밥통」을 넘어 국가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

도이다.
화학 담당과의 일원화는 필수적이고 대세이며, 이기주의적 태도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00/2/7>